

‘競爭’과 ‘大資本化’ *

- 過剩設備와 長期不況에 대한 論爭史的 接近 -

洪 太 喜**

논문초록

본 연구는 자본주의 역사 전체를 걸쳐 진행된 ‘대자본화’의 과정을 주목하면서 ‘경쟁’, ‘독점’, ‘대자본’이라는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현대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자본논리학파’의 관점에서 ‘독점자본주의론’과의 논쟁을 개괄하고 그 이론적·현실적 함의를 타진한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개념을 통해 대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대자본의 형성을 고정자본의 증대로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독점자본주의론’과 ‘자본논리학파’의 시각을 비교, 분석한다. 다음으로 경기변동에 미치는 고정자본의 역할을 해명하기 위해 대자본 하의 가격 및 이윤율 변화를 살펴면서 과잉설비의 원인을 해명한다. 또한 대자본이 단기적 경기순환과 장기적 추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핌으로써 과잉설비와 장기불황의 원인을 밝힌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조적 과잉축적’된 현대자본주의의 성격규명을 시도한다.

핵심 주제어: 경쟁, 장기불황, 구조적 과잉축적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2, E3, N1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KRF-2002-074-BM1001). 유익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 논문의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e-mail: hongtaehee@korea.com

I. 머리말

1998년에 출판된 Robert Brenner의 논문 “혼돈의 기원”은 경제위기를 분석하는 경제학적·역사학적 시각에 대한 교정을 요구하고 있다. Brenner의 논제는 표면적 위기분석의 집요한 설득에 끌려 다니지 말고 자본 간의 경쟁에 자본주의 분석의 초점을 맞추라는 단순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은 상당히 크다(Brenner, p. 33, p. 38). 이것은 조금 과장하자면 서양철학사 전체를 ‘존재망각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존재론으로서의 철학’을 재정립하고 그 시작을 고대철학의 재해석에 둔 Heidegger의 메시지에 비견할 만한 의미가 있다.¹⁾ 즉 Brenner의 메시지는 현대자본주의 분석에 있어서 흔히 발견되는 ‘경제주체망각’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²⁾

Brenner의 논지에 따르면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중심주체, 즉 ‘자본주의적 존재자’는 ‘기업’ 또는 ‘자본’이며 경제법칙의 주된 작동장소 역시 기업의 경제행위이다.³⁾ 사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자본주의 경제법칙은 유독 기업이란 경제주체에게만 사형선고를 내린다. 즉 불황으로 망하는 기업은 있어도 불황으로 사멸하는 국가는 없으며, 불황으로 인한 개인적인 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있지만 경제법칙 자체가 개인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연구의 중심은 ‘자본의 논리’에 대한 연구여야 하며 경제법칙의 위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제위기분석에 있어서는 더욱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⁴⁾

- 1) Heidegger가 Platon의 Idea론을 통해 존재자체의 선험적 지평으로 돌아갔다면 Brenner는 Marx의 자본론을 참고하나 통계청으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러나 선험적 지평으로 돌아간 Heidegger가 나치즘 같은 반인륜적 상황을 해석하는 어떤 윤리적 근거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처럼 Brenner의 분석 속의 통계자료도 임노동 문제나 제 3세계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석할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2) 70년대의 자본주의 이행논쟁기에 중세에서 근세로 이행해 간 원동력으로 계층 간의 갈등에 주목했던 Brenner가 현대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계층 내의 갈등, 자본 간의 경쟁을 주목한 것은 매우 신선하다. 논리의 일관성에 앞서 역사적 현실에 충실한 역사가로서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듯하다.
- 3) Marx는 물론이고 Sombart도 자본주의의 핵심을 자본주의적 기업 경영으로 파악했고 Weber 또한 자본가정신이 기업으로 표출된 경제조직을 자본주의로 정의했다. 이에 현대자본주의분석을 자본 간의 경쟁에다 초점을 맞춘 Brenner의 관점은 정당한 것 같다(정성진, 브레너, p. 395).
- 4) Brenner에게 현대자본주의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적 존재자’ 사이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이윤을 저하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정성진, 브레너, p. 412; 정성진, 1999; 조복현, 2002, p. 151).

물론 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은 특정 경제주체만의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상에 따라 여러 작동 주체들의 역할을 곱씹어 보는 작업은 당연하다. 더욱이 기존의 분석틀만으로는 채 설명 못한 경제현상의 발생 앞에 새로운 해명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실용학문인 경제학이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이다.

우리는 20세기에 나타난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결실로 주저 없이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나 케인즈 경제학의 전통을 꼽는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맑스 경제학의 틀 속에 자본주의의 발전양태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케인즈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외곽에서 기업·정부·가계라는 배우에 의한 드라마를 연출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삼스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했고 해결하여야 했던 점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전자가 몰락해야 하는데 몰락하지 않는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다면, 후자는 몰락할 듯한 자본주의를 구제할 사명을 띠었다. 이에 이들은 정부라는 경제주체의 역할이나 조절 기능에 눈을 돌렸다. 그 결과 두 조류 모두 자본의 논리와 자본수호의 논리를 결합하여 법칙화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일단 상처난 자본주의를 훌륭하게 봉합한 듯 했다. 그러나 그렇게 치료하기에 자본주의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⁵⁾ 이제 와서 다시 원점에 선 경제학이 Brenner의 메시지를 통해 ‘자본주의적 존재자’에 대해 재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 Marx의 지적처럼 자본주의적 발전의 진정한 장애요인은 자본 그 자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Marx, MEW, 25, p. 260).

본 논문의 일차적 목적은 ‘경쟁’과 ‘대자본화’ 개념을 재해석하려는 것이다.⁶⁾ 즉 자본주의의 태생적 속성인 ‘경쟁’과 자본주의 역사 전체에 걸쳐 관철되어 온 ‘대자본화’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자본주의의 기본속성을 파악하려 한다. 이는 Brenner의

5) 현재 케인즈 경제학의 노력이 ‘여기에 있는 문제를 저기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을 받는 것처럼 국가독점자본주의론도 ‘그럼 독점자본은 자본이 아니냐’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두 학문적 조류는 개발독재와 재벌의 성장을 직접 목격한 한국경제학의 짧은 역사로서는 심정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분야이며 여전히 대표적인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 사실 독점에 대한 정의는 어원적으로는 명료하지만(Monopoly=사람 한명)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주류경제학에서도 J. S. Bain 형의 산업조직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신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독점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합의가 내려지지는 못한 상황이다(가즈노리, 1997). 정치경제학에서의 독점은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고전파의 독과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고의 논점은 어떤 것을 독점이라고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경제 내에서 독점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주장에 따라 자본 간의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장기불황의 원인으로 이해하든, 독점자본론자의 주장에 따라 세계화의 문제를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든 이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그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Hein, 1992; 정성진, 1990; 김수행 외, p. 255).⁷⁾ 아울러 이 개념들의 재해석을 통해 197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과잉생산 속의 장기불황'에 대한 해명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문제제기는 현대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과잉생산과 경제위기라는 고질병에서 출발한다. 즉 어느 나라 어떤 산업분야 할 것 없이 대자본화 현상이 일반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대자본주의에서 산출량과 가격에 대한 지배력을 자기정체성으로 인정받은 대자본이 왜 경기순환의 전 국면에 걸쳐 지속적으로 과잉생산 하에 놓여 있으며, 반복적으로 경제위기를 맞느냐 하는 점이다. 게다가 거대기업의 전 지구적인 전횡 속에서도 날로 치열해지는 자본 간의 경쟁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독점에게 가격설정자 권한을 부여한 경제학의 후한 인심에 비해, 독점이란 우연적이거나 일회적이며 독점자본도 별 수 없이 경쟁의 논리 하에 종속된다는 자본논리학파의 독점자본주의론 비판에서 해명의 실타래를 풀어보려는 것이다.⁸⁾ 이에 본고는 자본논리학파의 논지를 주목하면서 이들이 독점자본주의론과 벌인 논쟁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려 한다.⁹⁾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는 개념을 살펴보

7) 이채언은 주류경제학에서는 독점과 경쟁이 서로를 배제하지만 맑스경제학은 자본축적의 논리에 따라 경쟁은 독점으로 향하고 경쟁은 독점으로 환원된다고 한다(이채언, 2000, p. 111)

8) 주류경제학이 독점의 외연을 규정하면서 시장수요의 95%를 공급하면서 생산량과 가격결정에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업을 지칭하므로 만약 독점기업이 가격설정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공급독점을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독점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급독점을 하면 독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용되어 있다. 또한 독과점도 측정 지표로 사용되는 집중도(CR: concentration ratio)의 경우 해당산업 내에 시장점유율 순위별로 기업서열을 매긴 후 n위까지의 누적시장점유율을 n사집중도로 표현 50%를 넘으면 과점상태로 파악한다.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사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면 '시장지배사업자'로 규정한다.

9) 본 논문에서는 그간 국내 선행연구에 따라 자본논리학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흔히 정치경제학 내부에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반대하는 조류를 통틀어 네오마르크스주의로 명명하고 각국의 차별성에 따라 영국의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s), 미국의 급진주의 경제학자(Radical Political Economists), 독일의 자본논리학파(Kapital-Logiker) 등으로 나눈다. 진작 독일 내에서는 자본논리학파로 명명되지 않을 경우가 많고 논자에 따라 다양한 명칭(근본주의자, 세미나 맑스주의자, 트로츠키파 등등)으로 사용된다(김성구, 1888, p. 18).

고, 독점자본주의론의 전개과정을 요약한다. 다음으로 경기순환과 함께 이윤을 변화를 고찰하겠다. 그리고 대자본 하에서 나타나는 과잉생산의 원인을 타진하고, 마지막으로 자본논리학파의 관점에서 대자본이 단기적 경기순환과 장기적 추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피면서 현대선진자본주의의 장기불황을 해명하겠다. 이에 따라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란 현재 자본이 직면한 위기 타개책들로 인해 변화된 양상에 대한 일면적 해석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각 해석들이 일정한 설명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피적이며 부분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지지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음을 자본논리학파의 ‘구조적 과잉축적’이란 개념을 통해 제시하겠다.

II. 대자본화 과정(processes of concentration)과 자본 간의 경쟁

1. 대자본의 형성과정과 자본의 집중과 집적

170여년간에 걸친 자본주의 역사는 ‘전체의 부가 급속하게 커지는 가운데, 부자의 부가 점점 커지는 과정과 빈자의 부가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지는 세 과정의 동시적 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러한 현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시기는 대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시기, 20세기 중반 이후에서 6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 그리고 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는 세계화의 물결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시기 이다.

Marx는 소자본이 대자본으로 변화되는 경제현상을 주목하면서 이를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Marx, MEW, 23, p. 653). 그에게 집적(Konzentration des Kapitals)이란 기업이 그 간의 경제행위에서 얻은 이윤을 재투자하면서 기업의 자본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달리 말해 개별자본이 잉여가치를 생산재로 재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자본의 집중(Zentralisation des Kapitals)은 이미 존재하는 자본 사이의 결합을 지칭한다. 즉 개별자본이 자본축적 전략의 일환으로 자율성을 포기하나 이를 통해 자본의 크기,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지칭한다.¹⁰⁾

10) 독일어로 ‘Konzentration’이란 엄밀히 말해서 밀도가 높아진다는 뜻이고 ‘Zentralisation’은 어떤 중심을 향해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석하면서 이를 각각 집적과 집중으로 번역했는

이러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의 내생적 성장에 따른 집적화 과정이 지배적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그 이후 나타난 카르텔·트러스트·신디케이트 등의 등장은 전형적인 집중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중화된 자본 간의 결속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다. 카르텔이 독점체로 기능하게 되면 개별자본의 이윤이 일단 증가하나, 형성된 카르텔을 위반하면 초과이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르텔은 항상 붕괴되려는 속성을 띤다(Lenin, p. 43).

특히 경제위기 시에 카르텔은 쉽게 붕괴된다. 카르텔 내부에 약육강식의 법칙이 더욱 첨예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희생자는 대개 소자본이었다. 그러나 카르텔의 성립은 역사적으로 선진자본주의 자본들이 어느 정도 대자본화 된과 더불어 끝이 났다.¹¹⁾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자본집적보다 인수합병, 조인트 벤처 형태의 흡수합병 등이 지배적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이 현재까지도 관철되고 있다. 특히 현대자본주의에서는 경기변동과는 큰 상관없이 기업간의 전략적인 차원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isker(1999)에 따라 일반적인 대자본화과정을 경기순환과 더불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황기에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려 자본집적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호황이 절정기에 이르면 생산의 무계획성으로 전반적인 과잉생산기에 진입하면서 자본의 집적과정은 일단 멈추게 된다. 과잉생산기에 이은 경제위기와 불황기에는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도산으로 인수합병 등이 쉽게 이루어지고 생존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자본집중과정이 진행된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경기순환을 넘어서 경제 전체에 걸쳐 더 큰 자본, 기업들이 등장하는 대자본화 과정이 노정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구조가 나타난다. 그 핵심은 더 거대한 고정자본을 품고 있는 자본의 등장이었다.

데 우리말로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Lenin은 이 두 개념을 합하여 'Konzentration'이란 개념으로 썼고 대부분의 주류경제학에서도 집중화과정인지 집적화과정인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를 흔히 '경제력 집중'으로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념을 나누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Marx의 어법에 따라 집중과 집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그 외 이 두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일 경우에는 '대자본화(Konzentration und Zentralisation des Kapitals)'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11) 각국에 나타난 독점금지와의 관계되는 법적 제한도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존 대자본의 자본의 규모가 재생산영역을 지배할만큼 충분히 성장했다는 점과 기존 자본이 신규대자본의 진입을 원하지 않았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등장한 자본주의의 외양은 분명 초기 자본주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성격규명을 두고 주류경제학에서나 정치경제학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각도의 긴 논쟁이 있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후기 케인즈주의자들(Kalecki, Steindl, Eichner 등)에 의해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정치경제학에서는 거의 전 연구자가 참여한 논쟁기를 거쳤다. 대자본화 과정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에는 자연스레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정치경제학계의 논쟁은 먼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대자본화 현상을 두고 Hilferding과 Lenin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러시아 혁명 이후에도 논쟁은 계속되었다.

공황과 세계대전을 치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전후의 호황이 끝나고 나타난 7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은 경제학계에 긴급한 연구 과제를 던져주었다. 이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미진한 대답을 틈타 정치경제학계는 새로이 목소리를 가다듬어 갔다. 그러나 채 일정한 해병방식을 정립하기도 전에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은 정치경제학의 존립기반 자체가 다시 흔들렸고 특히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단계론의 거취를 두고 정체성의 위기에 빠졌다.¹²⁾ 자본주의 발전단계론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논의를 전개한 자본논리학파는 동구권 몰락의 여파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론』 하나를 붙잡고 거대한 주류담론에 체계적으로 응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더욱 첨예하게 전개된 대자본화 과정(다국적 자본의 팽창, 세계적인 차원의 인수와 합병)과 남북문제, 환경문제, 인종문제, 경제위기, 세계금융시장의 지속적 불안 등은 다시 양 진영에 힘을 실어 주었고 현재 재결집이 확인되고 있다(김성구, 2002; Binus, 1999; Kisker, 1999; Huffschnid, 1995, 1999; Heininger, 1997).¹³⁾

이러한 정치경제학계의 논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워낙 이론가들 사이에 논지의 차이도 크고 각 조류 내에서도 여러 분파로 갈리어 있어서 어찌면 정리가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아울러 무리한 일반화는 늘 왜곡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오히려 위험하기도 하다. 사실 정치경제학계의 긴 공방은 자본주의의 전망, 『자본론』 해석, 현대자본주의 해석, 각국자본주의 해석 등을 둘러싸고 다각도로 진행되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지도 못했다(정운영, 1987;

12)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소련의 발전과 소련공산당의 정책의 깊은 영향을 받고 발전했었다.

13) 독일에는 70년대 논쟁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구동독지역의 좌파 정당(PDS)의 이론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주목된다.

1988a; 1988b). 게다가 각종 논쟁의 승패가 채 가려지기도 전에 현실경제의 움직임은 앞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갔다. 그러나 연구자 사이에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동일했다. 그것은 점점 대자본화 되어가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 폐해였다.¹⁴⁾

2.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자본논리학과의 '대자본화' 해석

독점자본주의론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9세기에 태동된 자유경쟁자본주의가 1860년에서 1877년 사이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중소자본의 몰락과 중공업의 발전, 주식회사의 등장으로 19세기말부터 자본의 최소단위가 커지고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감에 따라 20세기에 진입하여 독점자본주의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점자본과 국가의 공조체제를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본다. 나아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내의 주류들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인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결국에는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본주의발전단계론을 정통이론으로 삼았다.¹⁵⁾

사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자본주의와 궤를 같이하면서 그 역사를 축약해 놓은 패러다임이다(정운영, 1987, p. 4). 이론적 뿌리는 Marx에 있으나 Hilferding, Luxemburg, Lenin, Stalin을 거치면서 정립되었다. 특히 1970년대 내·외부논쟁기를 거치면서 그 이론적 함의를 현대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지자를 확보한 현대자본주의 분석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이다.

Marx의 창조적 계승을 꿈꾸었던 Hilferding은 의사답게 '조직된 유기체로서의 자본주의'개념을 설정했다. 그는 대자본화 과정이 "한편으로는 카르텔과 트러스트를 통해 자유경쟁을 파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밀착을 유도한다"고 파악했다(Hilferding, p. 15). 그는 이렇게 형성된 자본을 '금융자본(Finanz-

14) 정치경제학계의 논쟁들은 서로 얽혀 있어 한 부문만 떼어내서 다룬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현실적인 제약을 인정하고 1970년대에 구서독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독점이론가들과 자본논리학과 간의 '경쟁-독점' 논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한국에 이를 소개한 대표적 선행연구로 김수행 외, 1995; 정운영, 1988, 1987; 김성구, 1988; 최우성, 1991; 김계환, 1991; 한성안, 1993; 김호균, 1993.

15) 국가독점자본주의 내부의 분파와 내부논쟁에 대해서는 김성구(1988)와 정운영(1987, 1988a, 1988b).

kapital)’이라고 칭하고 금융자본의 조정에 의한 ‘조직된 자본주의(Organisierter Kapitalismus)’에는 경쟁이 말소되어 경기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상동, p. 17).

Hilferding보다 직접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Lenin은 사회변혁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필요했다. 이에 그는 대자본화 현상을 더욱 정치적으로 재정리했다. 그는 대자본화를 독점화로 해석하고 자본주의적 경쟁이 독점자본주의에 맞게 변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조절기능을 강조하면서 독점자본의 국가독점단계, 제국주의단계로 진입하고 결국은 사회주의로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Lenin, p. 161). 그의 견해는 뒤에 Stalin에 이르러 정론으로 채택되었으나 그 함의의 경직성으로 인해 술한 오해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들을 이은 20세기의 독점이론가들은 선구자들의 작업을 해석하는 작업과 그들이 당면한 자본주의의 변화에 맞도록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변형시키는 작업을 함께 수행하여야 했다. 또한 각국 자본주의의 이질성을 담아낼 패러다임까지 만들어야 했다(정운영, 1987, 1988a, 1988b).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후에도 대부분의 논자들은 여전히 국가독점자본론의 기본논지를 지지하고 있고 독점과 국가개입이 강화되고 있는 자본주의를 주목하고 있다(Heiniger, 1997; Huffschnid, 1995). Huffschnid(1995)는 현대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요소로 경제적으로는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정치적으로는 국가 조절기능의 강화 및 자본과 국가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자본의 이익이 증대하는 점을 들었다.

이렇듯 90여 년 동안 나름의 이론적·실천적 검증과정을 거친 독점자본주의론의 변하지 않는 핵은 ‘큰 힘의 작용은 작은 힘의 조합의 작용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독점에 의한 경쟁의 대체로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를 주장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Steindl(1976), Huffschnid(1975; 1995), Sweezy(1974), Hofman(1987), Schui(1978), Brosius 외(1980), Arbeitsgruppe Alternative Wirtschaftspolitik(1984), Heiniger(1997) 등이 있다.

이에 비해 동질성을 강조하는 조류는 자본논리학파의 입장으로 대표된다. 이들은 독점자본이란 사실 거대한 규모의 자본을 지칭하는 것이며 실제 독점이 형성되더라도 이를 경쟁의 일시적 변형으로 파악하며 Marx가 제시한 일반법칙이 현대자본주의 분석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Altvater, 1975; Kisker, 1978, p. 523, 1999; Hein, 1991). 즉 독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자본은 경쟁 없이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고 파악한다(Marx,

MEW 42, p. 317, p. 457). 그러므로 자본축적으로 거대자본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자본주의의 태생적 속성은 경쟁이며, 독점에 의해 경쟁이 사라진 사회란 이미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본논리학파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Altvater (1975), Altvater 외 (1980), Semmler (1979; 1980; 1984), Ebbighausen 외 (1975), Shaikh (1980), Kisker (1978; 1990; 1997; 1999), Weeks (1981), Hein (1991) 등을 들 수 있다.

III. 대자본화와 가격결정매커니즘

1. 대자본의 가격설정자 기능에 대한 재고

본장에서는 대자본화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대자본의 가격설정자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독점자본주의론이 인정되려면 독점자본 중심의 자본주의가 그 이전에 경험한 자본주의와는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쟁시장에서는 동일한 투자에 대해 초과이윤을 가질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 독점의 성격을 지배와 폭력의 연관에서 파악한 독점자본주의론은 초과이윤을 가질 수 있는 독점시장개념을 독점자본주의론에 수용했고 독재적 가격설정자로 독점자 개념을 설정했다.¹⁶⁾ 그러나 독점적 대자본이 가격설정자로 기능하면서 독점이윤을 얻게 되면 Marx의 이윤율 균등화법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Marx에 뿌리를 둔 독점자본주의론으로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자기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독점자본주의론은 문제 해결의 출구를 자본주의의 질적인 변화에서 찾았다. 즉 자유경쟁자본주의가 대자본화 과정을 거치면서 독점자본주의 및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이행되었으며, 이 독점자본주의하에서는 Marx의 일반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독점이 형성된 경제체제에는 가치의 법칙과 나란히 권력과 지배도 작용하고 자연히 독점과 비독점 사이에 이윤율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Hufschmid, 1975). 그러나 자본논리학파는 비록 특정자본이 독점이윤을 누린다고 해도 이를 일시적이며 과도기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그들은 자본 간의 이윤율 차이의 원

16) Brenner의 '국제경쟁에 의한 가격의 하방압박으로 인한 이윤율하락'명제가 작동하거나 독점자본주의론이 주장하는 '경쟁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대체'명제가 관철되려면 자본에게 가격설정자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인을 생산부문 속에서 찾으면서 생산조건의 차이에 따라 이윤율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경쟁과 평균이윤율이란 자본 일반의 구성조건이므로 독점 이윤의 설정은 자본일반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Altwater, 1975).

이에 대해 독점이론가들은 독점의 본질을 재생산영역 지배력으로 해석하며 독점 자본주의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즉 독점자본은 재생산영역에서의 지배력(노동 시장과 수요의 독점, 생산력의 상대적 우위, 화폐자본 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평균이윤이 아닌 독점이윤을 얻으며 가격설정자로 기능한다고 하며 독점가격의 경직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¹⁷⁾

그럼 먼저 독점자본주의론이 주장하는 가격결정메커니즘을 살펴보자. 자본집중도가 높은 제조업 분야의 가격은 여타 제조업 분야에 비해 경직적으로 움직인다. 그 이유는 일단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자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본은 경기하강기에 단기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다고 파악하고, 가격조정을 통한 매출액 증대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경기상승기에는 장기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게 책정되므로 다른 자본의 진입가능성을 막기 위해 가격조정을 가능한 피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독점자본의 합리적인 가격정책의 결과 경기순환 전 국면에 걸쳐 가격이 경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자본논리학파는 가격의 경직성이 특정자본의 시장지배력에 의해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즉 가격경직성이란 시장지배력에 의해서라기보다 자본의 가치실현과정에서 도출된다. 자본논리학파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가격경직성을 고정비용의 역할을 주목하면서 설명한다. 여기서 자본논리학파의 생산비용가격결정 메커니즘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집중도가 높은 제조업부문에 경기침체로 수요와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산출단위당 고정비용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이윤량과 이윤율은 평균이상으로 떨어지게 된다. 평균자본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데 가격을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므로 가격은 현상유지되거나 소폭의 변화만 보인다. 반면에 경기상승기에서는 수요증가에 따라 산출단위 당 고정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다시 생산비용에 의거해서 가격이 자본집중도가 낮은 여타 제조업에 비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경기변동을 넘어서 가격의 움직임이 경직성을 띤다. 하지만 가격경직성은 무엇보다

17) 본 논문에서는 이윤율에 미치는 가변비용(임금)의 영향을 배제했는데 ‘임금상승-이윤압박론’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Marx, MEW, 25, p. 223).

생산비용메카니즘의 반영이지 공급자의 재생산영역지배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Kisker, 1999).

나아가 자본논리학파는 현대자본주의의 공산품가격의 안정세와 과잉설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높은 고정비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자본은 생산메카니즘 속의 제약으로 가격조절보다 산출조절을 하게 되고 경기변동에 따라 설비가동률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다. 여기서 진입·탈퇴 장벽 때문에 구조조정도 용이하지 않게 되면 경기순환을 넘어서 과잉설비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즉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본집중도가 높은 제조업 분야의 과잉설비의 원인은 무엇보다 높은 자본집중도에 있으며 자본의 공급시장지배력만으로는 과잉설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과잉설비가 나타나는 근본원인도 가격경직성의 원인과 같이 '자본 그 자체'에 있다. 자본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평균이상의 고정자본을 배경으로 한다. 높은 고정자본은 호황기에는 다른 자본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나 불황기에는 탈퇴 장벽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므로 대자본들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며 자본집중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과잉설비구도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독점적 지위에 있는 대자본의 가격설정자 기능은 무리한 일반화이며 실제로 대자본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재생산 영역을 쉽게 지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변화에 민감할 수 없는 태생적 결함을 동시에 가진다고 자본논리학파는 주장한다.

2. 대자본화와 이윤율의 추이

그러면 여기서 대자본과 이윤율 관계에 대한 양 진영의 입장을 살펴보자. 18) 주류 경제학은 이 문제에 대해 경쟁으로는 정상이윤 밖에 확보하지 못하며 모든 초과이윤은 불완전 경쟁의 결과라는 명료한 답을 내려놓고 있다. 그러나 독점 하에서도

18) 여기서 이윤율은 각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rx의 이윤율 : $r = P/K = P/Y \cdot Y/Z \cdot Z/K$

독점자본주의론의 독점이윤율 : $r_m = r_c + t + e$

(r_c : 비독점이윤율, t : 기술우위에 의한 잉여가치, e : 시장지배력에 의한 수탈)

Brenner의 이윤율 : $r = P/K = P/Y \cdot Y/K = P/Y \cdot P_y/P_k \cdot Q_y/Q_k$

(r : 이윤율, P : 이윤, K : 자본스톡, Y : 산출, P_y : 산출가격, P_k : 자본스톡가격, Q_y : 산출량, Q_k : 자본스톡량)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작을 경우를 상정하고 독점이라고 해도 반드시 초과이윤을 얻는 것만은 아니라고 여지를 보인다.¹⁹⁾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독점적 초과이윤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초과이윤은 국가에 의해서 승인되고 보장받는다.²⁰⁾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20세기 중반 이후 각국자본주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Baran and Sweezy는 미국 자본주의 속에서 경제적 잉여를 실현하고 있는 독점자본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독점적 대자본의 초과이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자본논리학과는 그 이유를 생산비용과 연관지어 해석한다. 어떤 대자본이라도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있는 자본이라면 생산관계 속에 돈별이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야 평균이윤율보다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점자본론자들은 다시 생산기술의 비교우위, 노동시장이나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탈로 초과이윤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자본논리학과는 수탈이나 국가로부터의 특혜란 꼭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특성만은 아니라고 파악한다(Kisker, 1978). 초기자본주의 시대나 그보다 앞선 중세 봉건시대에도 교황, 황제 등 권력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특권을 특정집단에게 내렸고 힘의 열세에 있던 계층은 수탈되었다. 이와 같은 권력과 자본의 밀착관계는 초기자본주의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었다고 파악한다. 아울러 생산기술의 비교우위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착취율이 증가하더라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 후에 나타나는 착취율의 증가가 이윤율을 보증하여 주지는 못한다고 반박한다.²¹⁾

다시 말해 자본논리학과는 지속적으로 자본 자체를 주목한다. 즉 현재 기업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를 해서 기술혁신을 하든 노동생산성을 높이든 거기에 든 비용을 채 다 회수하기도 전에 경쟁기업에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19) 주류경제학에서는 이윤량 = (독점가격-평균비용)×수량이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평균비용에 따라 이윤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한다. 한 산업 내에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평균생산비가 그 외의 기업에 비해 높게 되면 실제 이윤량이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이 주류경제학의 논리 속에도 추론된다.

20)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내부에서도 독점가격을 생산가격에 유비되는 조절가격으로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김성구, 2002).

21) 착취율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이윤율은 $1/(k+1)$ 증가하나 k 가 꾸준히 증가하여 매우 커진 상황에서는 착취율 증가의 영향이 미미하게 된다.

생산해내는 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본다. 이는 대자본이든 소자본이든 생산의 무계획성과 경쟁이란 자본주의적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물론 이들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윤율의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에 있어서도 이윤율 균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거를 대자본 간의 평균이윤율 균등화 경향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Hein, pp. 52-53, p. 95; Kisker, 1997, 1999):

- 특정 산업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윤율 균등화 경향이 관찰된다. 그러나 자본 간 생산조건의 차이와 이에 따른 생산비용의 차이에 따라 일정기간 이윤율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와 생산성 사이에 일반적으로 정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²²⁾
- 산업부문 간에도 자본 간의 이윤율 균등화 경향은 관찰된다. 그러나 자본이동의 제약이 있을 경우 이윤율의 차이가 장기간 나타날 수도 있다.²³⁾
- 대자본들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분야와 비주력분야 등으로 경영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특정산업부문내에서나 부문 간에 이윤율균등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본 간의 수익성 확보 경쟁은 대자본 간의 전체 이윤율을 균등화 시킨다.²⁴⁾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각 산업부문내에서나 산업 간의 이윤율 격차가 일반적인 이윤율 균등화 법칙 자체를 파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대자본은 고정자본의 이동제약으로 나타난 축적위기를 자본의 재편을 통해 교정하고 이에 따라 대자본 간의 이윤율 균등화 경향이 여전히 관찰된다는 요지이다.

22) Sass(1978), Dumlers(1983). 주류경제학에서도 기업성장과 규모 사이의 과제에 대한 논쟁이 'Gibart의 법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Hart and Prais(1956), Lucas(1967)의 선구적 작업에 의해 정의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23) Sass(1975), Semmlers(1980), Zschocke(1987).

24) Schwalbach 외 (1989), Flieshardt 외(1977), Schohl (1990).

IV. 대자본화와 장기적 불황의 관계

1. 대자본화와 경기순환과의 관계

이 장에서는 현대자본주의의 장기불황과 과잉설비 현상을 자본논리학과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겠다. 이를 위해 대자본화 경향이 자본주의의 단기적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려 한다. 먼저 대자본화가 단기적 경기순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Kisker, 1999; 김형기, pp. 372-379).

경기회복은 불황기의 구조조정의 결과 시작된다. 자본의 가치파괴, 임금하락, 설비재의 가격하락, 저이자율 등은 투자를 부추기고 고정자본 갱신을 위한 설비투자가 시작된다. 또한 신 기술 도입에 의한 신투자도 촉진되어 경기는 회복기에 진입한다. 생산재부문의 설비가동율이 높아지면서 경기는 회복기에서 호황기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과도기에 신투자자의 진입은 진입장벽으로 지연된다. 여기에는 대자본의 생산 시스템마저 시장변화에 유연하지 못하면 산출량의 증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설비투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높아진다. 만일 여기서 금융권이 이자율을 높이면 경기는 일단 주춤거린다. 즉 호황기로의 진입은 투자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경기예측에 따른 금융권의 신용창출에도 달려 있다. 이 상황에 처한 자본들이 호황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기본적으로 각 자본의 유동성에 달려 있다. 여기서 화폐자본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자본은 쉽게 도태된다. 반면에 보다 더욱 손쉽게 신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자본이 경기를 주도하여 경기는 호황기로 진입한다.

호황기에 이어 과잉생산기로 들어서면 총수요의 증가가 둔화된다. 특히 설비투자재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수요확보를 위해 가격이 내려야 하나 그간 자본의 설비투자의 증대에 따른 비용압박으로 가격은 시장이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못하게 된다. 이윤율은 떨어지나 호황기의 대규모 고정자본 투자의 결과 이자율은 상승한다. 신용사슬의 붕괴로 연쇄도산이 이루어지고 이자율은 폭등하고 설비가동률은 떨어지고 경기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한다.

대자본의 자금조달력은 이러한 경제위기 시에도 이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중소자본에 비해 강한 유동성을 확보한 대자본은 신용사슬에 의한 연쇄도산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생존 능력을 나타낸다. 경제위기를 지나고 불황기에도 대자본은 신용

시스템을 업고 자본에 대한 재조정을 보다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당장 경기변동에 강한 대자본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경기안정화를 위해 은행과 합작으로 대기업보호정책을 편다. 불황을 갖 경험한 대자본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노동과 하청계열자본에 대해 억압경영을 하게 된다. 억압적 재분배과정은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며 설비가동률은 자연히 더 줄어든다. 그러나 대자본의 자본집중적인 설비투자는 자본이동을 제한시켜 불황기에도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과잉설비는 회복기의 신규투자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경기변화의 일반적인 양상은 느리고 완만하게 순환된다.

2. 대자본화와 장기불황과의 관계

그럼 대자본화 경향과 현대자본주의 1970년대 이후의 장기추세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일단 선진자본주의가 1970년대 이후 변화된 모습을 나타냈다는 데는 모든 학파가 동의하는데, 그 특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 공업생산물 가격의 안정세
- 높은 독과점을
- 대자본의 포스트 포드주의적 재조직(생산의 유연화, 생산물의 다품종화)
- 대자본의 다형태투자전략의 가시화(실물자본, 금융자본, 상업자본 등에 모두 투자)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학파 간 해석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독점자본주의론은 7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의 장기불황과 더불어 나타난 장기적인 이윤율 하락추세를 일단 독점개념을 통해 해석하려 했다. 즉 독점자본은 굳이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의 동력이 약해지며, 이것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장기 불황이 나타난다고 했다. 나아가 독점부문과 비독점부문 간의 이윤율의 차이도 장기불황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서 부문간 이윤율의 차이가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고 유효수요 부족을 일으켜 장기적인 불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Schui, 1978).

그러나 기술혁신의 정체나 독점부문과 비독점부문 간의 이윤율의 차이도 이윤율 하락에 대한 일반적인 이유로 제시되기에는 부족했다. 자본논리학파는 이 문제의 해답도 자본주의의 일반법칙에서 도출했다. 이윤율 하락경향의 근본 이유는 ‘투자해서 돈벌이가 크게 안 되는데도 계속 투자를 해야지 손해를 덜 보는 게임의 법칙’, 자본의 유기적 고도화로 인한 자본산출비율의 저하에 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수익성이 하락하면 시장에서 탈퇴하여야 하는데 거대한 몸집을 한 대자본은 시장에서의 탈퇴가 용이하지 않다. 큰 고정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하락한 이윤율을 감내하면서도 기존의 분야에 존속하게 되고 결국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체제가 지속된다. 그러므로 고도의 자본집중이 이루어진 선진자본주의의 경향적인 이윤율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²⁵⁾ 과잉설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나서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거나 조절정책에도 수요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물가가 내려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3.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과 구조적 과잉축적

자본논리학파의 맥을 잇는 과잉축적론자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과잉축적’ 개념을 가지고 대자본화,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과 장기불황을 설명한다. 이들은 장기불황이 대자본화 경향, 즉 고정자본의 비대화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파악하고 가치법칙을 가지고 현대자본주의를 분석하고 1970년대 이후의 선진자본주의를 ‘구조적인 과잉축적(Strukturelle Überakkumulation)’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해한다 (Altvater, 1982; Bischoff, 1986; Kisker, 1978; 1990; 1997; 1999, Hong, p. 5).

여기서 ‘과잉축적(Überakkumulation)’이란 필요 없이 지나치게 재투자가 많이 된 상황, 즉 자본재 투자, 설비투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된 현상을 지칭한다.²⁶⁾ 구

25) 선진자본주의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T. E. Weisskopf(1987), R. Brenner(1998), P. Armstrong, A. Glyn and J. Harrison(1984), A. Glyn, et al(1990), OECD(1997) 등이 있으며 한국 사례연구로는 정성진(2000)과 장하진(1997)이 있다.

26) 축적(Akkumulation)이란 단어는 그 정치경제학적 이미지 때문에 비교적 거리를 두고 사용되고 있으나 인간의 경제행위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말은 없다. 인간은 내일을 위해 부나 지식을 축적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단지 경제성장 뿐 아니라 학문이나 역사를 가질 수 있다. 서양자본주의의 맹아로 축적구조의 존재여부가 흔히 거론되듯이 170년 자본주의 역사는 지속적인 축적의 역사이며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폭발적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성장도 바로 지속적인 축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번 돈을 기계를 사는데

조적 과잉축적 개념은 경기순환적 과잉축적과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경기순환적 과잉축적은 경쟁과 자본의 논리에 따른 투자행위의 결과이며 긍정적인 투자행위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갑자기 부정적인 자해행위로 나타나는 국면을 지칭한다. 즉 경기순환적 과잉축적에 의한 경제위기는 자본축적의 일시적 교란으로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한 필요악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구조적 과잉축적이란 장기적으로 진행된, 그리고 예측된 자본주의적 발전의 결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조적 과잉축적이란 경기순환적 과잉축적처럼 일회적이거나 우연적인 과잉축적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과잉축적을 의미한다. 이는 실물부문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손해를 보는 상황이 경기순환을 넘어서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철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단계를 구조적 과잉축적단계라고 하는데 자본축적의 가속화 단계 이후에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는 추가적인 자본축적에도 불구하고 경향적으로 전체 사회의 이윤량이 늘어나지 않는 단계를 가리킨다(Hong, p. 135).

여기서 구조적 과잉축적으로의 진입이란 이윤율의 저하를 축적률로 더 이상 보정하지 못하는데도 계속적인 축적과정이 진행되어 이윤량까지 줄어드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과잉축적이 단기적 경기변동과는 관계없이 지속되게 된다. 달리 말해 축적률이 이윤율의 변화보다 작을 때, 즉 이윤량을 가지고 이윤율의 저하경향을 보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이를 간단히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G(\text{화폐}) \rightarrow W(\text{상품}) \rightarrow P(\text{생산}) \rightarrow W'(\text{상품}) \rightarrow G'(\text{화폐})$ 의 자본의 일반적 순환 과정은

$G' - G \leq 0$ 일 때 성립된다. $\pi(\text{이윤량}) = rC$ 이며 이윤량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

쓰는 행위를 축적이라고 하고 이 행위가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져서 돈벌이가 어려워진 상황을 과잉축적으로 표현하며 이를 자본주의의 위기로 파악한 것은 서양학문의 전통 속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개이다. 하지만 동양이나 그 외의 자본주의가 태동하지 못한 지역의 특징으로 축적구조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를 후진성으로 해석하는 맑스주의의 문화적 편견은 삶의 양식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W_{\pi}(\text{이윤량의 변화율}) = W_r(\text{이윤율의 변화율}) + w_k(\text{축적의 변화율}) \quad (1)$$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출 때 자본축적은 가속화되며 전체 사회의 이윤량은 증가한다.

$$W_{\pi} > -W_r \Rightarrow W_{\pi} > 0 \quad (2)$$

그러나 자본축적의 진행과 더불어 이윤율은 떨어지고 추가적인 자본축적에도 이윤량이 떨어진다.

$$W_k < -W_r \Rightarrow W_{\pi} < 0 \quad (3)$$

축적율의 증가가 지속되어야 이윤량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축적율은 증가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과잉축적 상태는 지속되게 된다.

$$W_k = \delta C / C = \delta C / \pi \cdot \pi C = ar \quad (4)$$

즉 $ar < -W_r$ 이 성립되면 이윤율의 감소를 축적율의 증가가 보정하지 못하고 이윤량이 떨어진다.

여기서 과잉축적시기로 진입하는 이윤율을 r^* 로 상정하자.

$$-W_r = W_k = ar^* \quad (5)$$

$$r^* = -W_r / a \quad (6)$$

그러므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은 필연적으로 구조적 과잉축적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구조적 과잉축적 단계에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결과로 과잉설비와 이윤율 저하에 따른 장기불황이 일반적으로 관찰되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이 역사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라고 과잉축적론자들은 주장한다(Altwater, 1982, P. 215; Bischoff, 1986, pp. 20). 물론 구조적 과잉축적의 단계론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단계론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자본의 일반법칙으로 해석될 수 없는 국가독점단계나 제국주의단계가 아니라 자본의 일반법칙으로 해석되며 그 진행 결과로 인한 역사적 현실이라는 점에 있다.

구조적 과잉축적된 현대 선진자본주의의 기본적 특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Bischoff, 1986, pp. 24-25; Kisker, 1999; Hong, p. 21):

- 경제성장률이 호황국면에서도 고도성장기와 같은 수준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 과잉설비 경향이 자본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순환 전 국면에 걸쳐 존재한다.
- 공산품의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낸다.
- 호황국면에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선진국에도 가난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 자본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대자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대대적인 합병과 흡수가 나타난다.
-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총자본의 조직방식이 새롭게 재편된다.

과잉축적론자들은 현재 선진자본주의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여러 발전양상들(금융자본주의, 지식자본주의, 디지털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포스트푸드주의, ...)을 과잉축적상황에 빠진 대자본들이 이윤을 보장받으려는 전략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재분배과정을 임노동에 불리하게 진행시키고 특히 기업의 복지비 부담을 줄인다.
-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주 업종을 바꾼다.
- 민족주의와 생산입지 경쟁력 담론을 확산시켜 각국 임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한다.
- 생산입지를 저임금국가로 옮기고 제 3세계에 대한 수탈을 강화한다.
- 비용을 가능한 외부화 시킨다.
- 법인세 인하요구 등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아낸다.
- 편의에 따라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철저한 보호무역정책을 요구한다.
- 새로운 이윤 창출 원천의 개발, 예를 들어 정보의 상품화와 가치실현체계자체의 정보화를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전략은 명백한 한계를 잉태했다. 축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늘 더 거대한 한계와 대체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했었

다(Marx, MEW 25, p. 260). 이러한 노력들로 일정기간 이윤율의 저하를 막고 미국의 신경제에서 경험했듯이 일시적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과잉축적론의 주장이다. 그들은 대자본들의 위기 타파책이란 기실 각 사회와 자연의 회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일단 거대한 위기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혼돈은 지속적으로 가중된다고 파악하고 있다(상동, p. 260).

이상이 과잉축적론이 주장하는 현대자본주의관이다. 부가 소수의 손에 모여면서 거대해질수록 부의 움직임은 둔해지고 결국 과잉체중으로 인한 고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결국 현대자본주의가 걸린 병을 낫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체중조절인 셈이다. Brenner가 장기불황의 해법으로 대기업의 해체를 제안했듯이, 과잉축적론자들은 과잉축적을 해체시켜야 선진자본주의의 경기회복이 가능하고, 실업이나 환경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V. 맺음말

이상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 전체를 걸쳐 나타난 대자본화 경향을 주목하면서 그 형성과정과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자본화 경향을 둘러싼 독점자본론자와 자본논리학파의 논쟁을 개괄하면서 그 현실적 함의를 타진해 보았다. 또한 현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과잉설비와 장기불황의 원인을 고정자본의 비대화로 과잉체중병에 걸린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서 찾는 과잉축적론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자본논리학파는 독점적 지위를 매개로 얻어지는 특별한 이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일시적이거나 경제외적인 상황을 통해서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본 사이의 경쟁을 막지는 못하며 단지 그 형태를 변형시킬 뿐이라고 해석한다. 즉 자본의 집중과 집적으로 자본의 최소단위가 증대되고 기업의 규모는 확대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자본이라고 정의해야하지 독점자본이라고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7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는 구조적 과잉축적단계에 진입했으며, 90년대 이후 금융자본주의화, 세계화 등도 현대자본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과잉축적의 위기를 타파하려는 전략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술 혁신이나 여타 조절정책만으로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번영기로 나아갈 수 없고, 경쟁과 생산의 무계획성에 의한 자본주의적 모순은 더욱 선명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Marx의 일반법

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된다고 본다.

주류경제학이 독점개념을 시장구조에만 치우쳐 이해하고 공급독점으로 가격설정 자기능을 채택하면서 현실에 부합한 이론체계의 정립을 위해 시장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결론합의가 현실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가정 하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음'으로 현명하게 처신하는데 비해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독점자본의 수익성 우위 테제는 지나치게 단순하게 권력의 비호에만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 대한 여타 반론에 대해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현재에도 여전히 '한번 세상을 둘러보라! 국가독점이나 제국주의의 증거가 도처에 널려 있지 않느냐'하는 웅변을 되풀이하고 있다(Huffs Schmid, 1995; Heining, 1997).

그러나 70년대 논쟁기 이후에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한때 주춤거렸던 논쟁이 90년대를 거치면서 현재 구미학계 특히 독일학계에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 것 같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노선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찾기 위하여 늘 손을 잡는 구미학계의 실사구시의 전통, 특히 구동독권의 이론가와 구서독권의 이론가들 사이의 원활한 연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 참 고 문 헌

1. 김제환, “서독에서의 경쟁과 독점에 관한 논쟁,” 『사회경제평론』, 제3집, 1991, pp.214-267.
2. 김성구, “독일에서의 독점자본주의논쟁,” 정운영 (편저),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 연구 II』, 1988, 돌베게, pp.15-46.
3. —, “제국주의 논쟁 다시보기: 현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론의 현재적 쟁점에 대하여,” <http://jbreview.jinbo.net/journal/0106/0106seongku.html>, 2002.
4. 김수행, 윤형식, 강성호, 김동춘, 윤도현,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맑스주의 연구』, 과학과 사상, 1995.
5. 김형기, 『새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1.
6. 김호균,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사회경제평론』, 제6집, 1993, pp.63-89.
7. 이채연, “21세기의 맑스경제학,”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제3호, 2000, pp.94-131.
8. 장하원, “한국산업정책의 진화과정과 이윤율 추세(1963-1990),” 조원희 (편),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1997.
9. 정성진, “세계경제위기와 맑스주의 공황론: 브레너 비판을 중심으로,” 『진보평론』, 1999 가을, pp.56-78.
10. —,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에 부쳐: 독점강화론 비판,” 『동향과 전망』, 1990 겨울, pp.286-307
11. —, “한국의 사회적 축적구조의 계량분석,” 『경제학연구』, 제48집 제2호, 2000, pp.95-123.
12. —, 로버트 브레너, “대답: 자본주의의 기원과 위기,” 『창작과 비평』, 2001/겨울, pp.388-427.
13. 정운영 (편저),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연구 I』, 1987, 돌베게.
14. —, (편저),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연구 II』, 1988a, 돌베게.
15. —, (편저),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연구 III』, 1988b, 돌베게.
16. 조복현, “마르크스주의 공황이론의 발전,” 김수행, 신정완 (편), 『현대마르크스경제학의 쟁점들』, 서울대학교 출판사, 2002, pp.123-154.
17. 한성안, “독점이론에 대한 자본논리학적, 신기술론적 재고,” 『사회경제평론』, 제6집, 1993, pp.91-131.
18. 최우성, “독일 ‘신좌파’ 정치경제학의 전개과정 - 자본논리학과파의 이론체계 및 그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사회경제평론』, 제3집, 1991, pp.145-213.
19. Altvater, E., “Wertgesetz und Monopolmacht,” in: *Zur Theorie des Monopols. Argument Sonderband* 6, 1975.
20. —, “Der Kapitalismus vor einem Aufschwung?,”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No.2, 1982.
21. Altvater, E., Hoffmann, J, and C. Maya, “Konzentration als Ursache von Profitrendifferenzen,” in: *WSI Mitteilung* 4/ 1980.
22. Arbeitsgruppe Alternative Wirtschaftspolitik, *Memorandum*’84, Köln, 1984.
23. Armstrong, P., Glyn, A. and J. Harrison, *Capitalism Since 1945*, London, 1984.

24. Baran, P. and P. Sweezy, *Monopolcapital*, 1963, 최희성 역, 『독점자본론』, 한울, 1984.
25. Binus, G., "Internationale Großfusionen - Trends in der Entwicklung des Monopols," in: *Z.-Zeitschrift für marxistische Erneuerung*, Vol. 10, No. 39, 1999, pp. 36-51.
26. Bischoff, J., "Überakkumulation, Krise und neokonservative Strategie," in: PROKLA et. al, *Kontroversen zur Krisentheorie*, Hamburg, 1986, pp. 20-30.
27. Brenner, R., "The economics of global turbulence," *new left review* 229, 1998, 전용복, 백승은 역, 『혼돈의 기원』, 이후, 2001.
28. Brosius, G., Huffschnid, J. and H. Schui, "Theoretische und empirische Aspekte des Zusammenhangs von Monopolisierung und Verlauf der Krise seit 1973," in: *WSI Mitteilungen*, 4/1980.
29. Dumler, G., *Die Kapitalrentabilität: der deutschen Wirtschaft 1965-80*, Birkbach/München, 1983.
30. Ebbighausen, R. et.al (eds), *Monopol und Staat: Zur Marx-Rezeption in der Theorie des staatsmonopolistischen Kapitalismus*, Frankfurt am Main, 1974.
31. Fliesshard, P., *Gewinnentwicklung und Gewinnverschleierung in der westdeutschen Grossindustrie*, Köln, 1977.
32. Glyn, A., Lipietz, A., Hughes, A. and A. Singh, "The Rise and Fall of Golden Age," in: S. Marglin and J. Schor(eds),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Oxford, 1990.
33. Hart, P. E. and S. J. Prais, "The analysis of business concentration: a statistical approach",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1956.
34. Hein, E., *Konzentration und Profitratendifferenzierung: theoretische und empirische Aspekte*, Frankfurt am Main, New York, Paris, 1991.
35. Heiniger, H., Aktualität der Theorie des SMK, in: *Z.-Zeitschrift für marxistische Erneuerung*, Vol. 8, No. 31, 1997, pp. 45-60.
36. Hilferding, R., *Das Finanzkapital. Eine Studie über die jüngste Entwicklung des Kapitalismus*, Wien, 1910.
37. Hofmann, W., *Monopol, Stagnation, Inflation*, Heilbron, 1987.
38. Hong, T. H., *Konkurrenz, Überproduktion und Überakkumulation. Hinsichtlich der Wirtschaftskrise Koreas*, Berlin, 1999.
39. Huffschnid, J., "Begründung und Bedeutung des Monopolbegriffs in der marxistischen politischen Ökonomie," in: *Zur Theorie des Monopols. Argument* Sonderband 6, 1975.
40. —, "Weder toter Hund noch schlafender Löwe - Die Theorie des SMK," in: *spw. Zeitschrift für sozialistische Politik und Wirtschaft*, No. 12, 1995.
41. —, "Täter auf den Finanzmärkten: Konzentration, Zentralisation und neue Formen des Einflusses von Banken und anderen Finanzunternehmen," *Z.-Zeitschrift für marxistische Erneuerung*, Vol. 10, No. 39, 1999, pp. 75-91.
42. Kazuhide, E., *Kyousou to Dokusen*, 1985, 공병호 (역), 『경쟁과 독점-산업조직론 비판』, 자유기업센터, 1997

43. Kisker, K. P., "Konzentration und Macht," Markmann, H. and D. B. Simmer(eds), *Krise der Wirtschaftspolitik*, Köln, 1978, pp. 523-534.
44. — , "Ökonomische Lehren aus dem Scheitern des Feudozialismus," in: *Das Argument* 180, No. 2, 1990, pp. 213-223.
45. — , "Strukturelle Überakkumulation und Kries der Erwerbsarbeit," in: *Z. -Zeitschrift für marxistische Erneuerung*, Vol. 8, No. 31, 1997, pp. 61-68.
46. — , "Kapitalkonzentration, Monopolisierung, Monopoltheorie - theoriegeschichtliche und aktuelle Aspekte," in: *Z. -Zeitschrift für marxistische Erneuerung*, Vol. 10, No. 39, 1999, pp. 64-74.
47. Lenin, V. I. ,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남상일 역, 『제국주의론』, 백산서당, 1988.
48. Lucas, R. E., "Adjustment costs and the theory of suppl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5, 1967.
49. Marx, K., *MEW 23, Das Kapital I*. Berlin, 1989.
50. — , *MEW 25, Das Kapital III*. Berlin, 1989
51. — , *MEW 42,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Berlin, 1974.
52. OECD, *Historical Statistics 1960-95*, Paris, 1997.
53. Sass, P., *Die Untersuchung der Profitratenunterschiede zwischen den westdeutschen Industriebranchen nach dem 2. Weltkrieg*, Tübingen, 1975.
54. — , *Das Grosskapital und der Monopolprofit*, Hamburg, 1978.
55. Schohl, F., *Differential Profit Rates, Growth Differentials and Efficiency: Searching for the Schumpeterian Corporation*, University of Darmstadt, Working Papers, Darmstadt, 1990.
56. Schwalbach, J. et.al, "The Dynamics of Corporate Profits," in: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3, No. 8, 1989, pp. 1625-1639.
57. Semmler, W., "Oligopoly, Differential Profit Rate and Stagnation? The Empirical Evidence for Western Countries," in: *Konjunkturpolitik*, 1979.
58. Shaikh, A., "Marxian Competition versus Perfect Competition," i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4, 1980.
59. — , "Konzentration und Profitratendifferenzierung-Emprische Ergebnisse zur Industrie der BRD," in: *WSI Mitteilung* 3/1980.
60. — , *Competition, Monopoly, and Differential Profit Rates*, New York, 1984.
61. Shui, H., *Stagnation als Folge zunehmend differenzierender Profitraten*, Konjunkturpolitik 2. 1978.
62. Steindle, J., *Maturity and Stagnation in American Capitalism*, New York/Berlin, 1976.
63. Weeks, J., *Capital and Exploitation*, Princeton, 1981.
64. Weisskopf, T., "Marxian crisis thoery and the rate of profit in the post war US econom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No. 3, 1979, pp. 341-378.
65. Zschocke, H., "Monopolpreis und heutige Anforderungen an die Akkumulation," in: *IPW Forschungshefte* 3/87, Berlin, 1987.

A Study of Competition and Processes of Concentration

- Concerned with the Long Downtum and the Overproduction -

Hong, Tae-Hee*

Abstract

The issu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effect of competition and monopolization on capitalism. Competition is a characteristic essence of capitalism. This existed in the 19th centry in the competition among many small relatively powerless capitals as well as today in the global economy, where the development is shaped considerably by competition of a handful of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is study reveals that competition does not vanish with concentration or centralization. It is true, growing monopolization changed the form of competition. The reason for the irrational development of modern capitalism is neither a general market saturation nor a problem of the wage levels. The structural overaccumulation is the real reason for the Long Downtum and the overproduction.

Key Words: competition, structural overaccumulation, long downturn

* Lecture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shin Women's University